

“살·활 적재적소 처방해야 진정한 간화선 지도자”

발 표 : 박재현(서울불교대학원대학 석사상)

논 평 : 월암 스님(백승사 선원장)

일 시 : 2008년 9월 19일

장 소 :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주 최 :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간화선의 핵심은 화두 참구와 병통의 극복에 있다. 역사적으로 지적돼온 간화선의 문제를 검토하고 현대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한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불학연구소 주최로 제7회를 맞이한 간화선 세미나는 올 여름내 간화선을 주제로 연구한 결과를 점검했다. 간화선 실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혼란한 세상에서 수행자의 본분을 바로 아는데 주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재현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는 ‘화두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동아시아 불교수행의 문제의식과 간화선에서 스승의 역할, 수행 제자의 역할과 공안(公案) 등을 논제로 다뤘다.

토론자로 참석한 월암 스님(백승사 선원장)은 논자의 논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논문의 본론이 간화선의 공안보다 ‘조사선의 기용과 살활’에 더 부합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도불교의 심성론 내지 인간관을 성악설에 기초한 논자의 시각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더욱이 “논자가 거론한 백과 스님의 <선문수경>이 초의 선사에 의해 많은 부분 비판받았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선수행이 불교사상과 수행의 축적에 의한 결과물임을 인정해야 한다. 공안의 의의이탈로 붓다의 출가 동기가 아니었던가”라고 말해 앞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확립해야 할 간화선의 과제를 제안했다. 박재현 교수의 발표문을 요약 정리했다.

무명중생에서 본래성불로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 태생적으로 사회성과 역사성이 취약하다. 중국으로 전래된 초기는 물론이고 화엄학과 천태학이 번성했던 교학불교시대와 선불교시대까지도 불교도들에게 부채로 남은 문제였다. 교학불교시대의 핵심 과제는 불경의 사회성과 역사성이 함축된 해석학 작업으로 이 문제를 보강하는 것이었다. 중국화학적 전통의 성선과 성악은 단순히 심성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인간 존재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확대됐는데 법장과 종일의 <화엄오교장>과 <원인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도의 사유전통에 의하면 인간은 오직 윤회 전생하는 무명의 중생일 뿐이다. 이런 집단적 존재 상황을 중국어법으로 표현하면 ‘성악’이다. 율리 도덕적 개념에서 확대해 심성의 선전적 문제로 보면 인도의 인간관은 기본적으로 성악설에 기초했다고 해도 좋다.

중국 출가승들은 붓다의 근본교설인 인천교(人天敎)와 소승계열의 불교이론, 유식사상과 중관사상으로 대표되는 인도 대승불교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불요의(不了義)로 칭했다. 여래장과 불성사상만을 분리해 요의(了義)로 천명했다. 이것은 성선(性善)에 기초한 불교 이론을 적극 발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로써 불교는 무명중생이라는 성악 코드에서 본래성불이라는 성선의 코드로 바뀌었다.

지관 그리고 화두

선불교가 등장하기 이전, 불교 수행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수행했을까? 천태학에서는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지만 결국 지(止)·관(觀)으로 단원했다. 지관수행은 기본적으로 의식을 갈무리 하는데서 출발해 분석적 사유 과정과 반비례한다.

지관수행은 분석지에 대한 비판적 의식에 중점을 둔 수행법이다. 분석지는 대상에 대한 물이해와 왜곡을 낳는다. 그 오염원은 내 안에 있고 그것을 차단

하는 것이 번뇌의 발생을 막는 첩경이라는 것이 지관수행자들의 세계관이고 자아관이다. 분석지가 올바른 인식작용을 방해해 대상을 왜곡하고 그것이 고(苦)의 발생으로 이어진다고 봤으니 당연한 대책이다. 문제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분석지를 확장하고 심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데에 있다. 오염원이 확장되고 심화된다면, 지관을 통한 자정(自淨)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다. 수행자들이 떠나 할 것 없이 고요하고 한적한 곳을 찾아 다녔던 것도 이러한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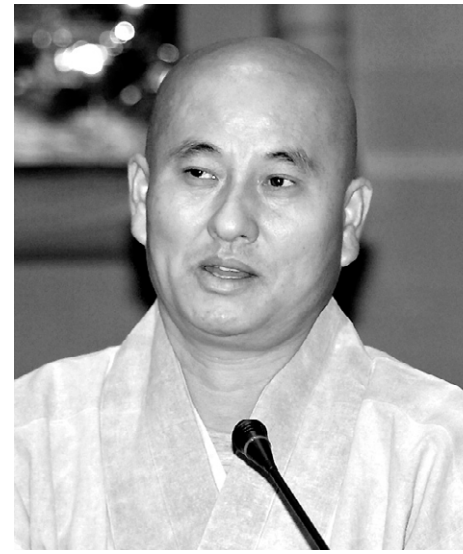
그렇다면 북새통 세상 속에서 수행은 끝내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화두수행은 중국 불교도들이 장안한 대안 수행법이었다. 화두 듣기는 화두라는 가상의 문제의식을 통해 의식의 자재(自在) 혹은 자유(自由)를 구현해 실상에 다가서는 수행법이다. 화두수행자가 두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할 것은 망령된 의식이 아니라 화두였다. 지관수행은 의식의 흐름이 본질적으로 불결하고 무상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면, 화두수행은 의식을 규정하지도 그것에 주목하지도 않는다. 화두가 성성하게 살아 있는 한, 인간은 뜬금없는 의식에 끌려 실종되지 않는 것이다. 불순한 의식은 애당초 없었고 모든 의식은 기어코 온전한 것이다.

살활(殺活)과 기용(機用)의 교육론

간화선 수행에는 길이 없고, 지도(地圖)도 없다. 수행에서 스승은 페이스메이커(pacemaker)이다. 경험이 미숙한 주자(走者)들이 목표하는 시간대에 전 코스를 만족스럽게 완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그가 한다. 선불교의 교육은 깨침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직접 겨냥한다. 깨침은 교육을 통해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체계적인 성과라는 것이 선불교의 혁명적인 발상이다. 선(禪)은 독각(獨覺)을 지극히 경계한다. 독각은 대승불교 발생 당시부터 제기된 문제였고 선에서 심하게 문제 삼았다. 교육, 즉 스승과 제자라는 교육 ‘관계’가 성립될 수 없기



박재현 교수.



월암 스님.

‘무명중생’ 성악코드에서 ‘본래성불’ 성선코드로 변모 화두수행은 대안 수행법 ... 가상의 문제로 실상에 다가서

때문이다. 다시 말해 깨침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깨침의 방식이나 과정 혹은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이다.

간화선에서 스승의 역할은 살활(殺活)과 기용(機用)이다. 살과 활은 수행의 집점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죽이고 살린다는 말이 섬뜩하지만 생사대사를 목전에 둔 일하기에 절실하다. 제자의 상황에 따라 스승은 살이나 활 혹은 살활을 동시에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

살은 부정적인 방식의 지도법이다. 옛나가거나 자만에 빠져 있는 제자에게 갑작스레 지침구나 면박을 주어 주눅 들게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처방은 당연히 순간적으로 심한 모욕감과 반항심을 유발한다. 하지만 수행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넘어 자만과 자기만족에 빠져 있는 수행자를 이끄는 데 탁월하다. 제자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도과(道果)를 스승이 은연중에 노출하는 방식 역시 살이다. 이러한 처방은 간혹 소심한 수행자가 수행자체를 포기하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한다. 수행과정에서 지나친 의욕과 자신감에 차 있는 수행자에게 자신을 되돌아 볼 기회를 갖도록 유도하는 처방이다.

활은 긍정적인 방식의 지도법이다. 이것은 제자를 격려하고 의욕을 북돋우는 내용이 기초를 이룬다. 수행에 진척이 없어 답답해지는 제자에게 격려하는 방식이다. 소심하고 완벽증에 빠진 수행자를 지도하는데 유용하다. 스승이 직접 낮은 단계의 도과를 은

연중에 노출해 제자가 ‘저 정도라면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다.

조선 말 백파공선(白坡公旋 · 1767~1852)이 모든 선적(禪籍)을 주의 깊게 분석한 <선문수경>에는 살활을 삼처전심(三處傳心)으로 보았다. 열반한 부처가 관 속에서 두 발을 내밀어 살과 활을 동시에 함께

보였다든 이치다. 부처는 가슴에게만 부촉했으니 그에게는 활일 것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기척도 없었으니 그들에게는 살이라는 것이다. 백파는 기용(機用)에 대해서도 여래선에는 없고 오직 조사선에만 해당된다고 보았다. 기용은 살이 아닌 활 지도법으로 살활과 함께 대기원응(大機圓應)과 대용직절(大用直截)과 기용제시(機用齊施)를 요체로 한다. 기는 기틀이요 용은 기틀이 빚어내는 작용이다. 기틀이 제 틀만을 고수한다면 빚어진 것들은 온전히 못하거나 끝내 빚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런 기틀은 소기(小機)일 것이어서 끝내 재료를 못 쓰게 만드는 살(殺)에 머무르고 만다. 마음 기틀이 촘촘할수록 대응은 더욱 어긋난다.心機愈密而大用愈乖하지 않았던가.

살활제시(殺活齊示)의 공안

살과 활의 처방을 얼마나 적절히 구사하는지 살펴 보면 간화선 수행지도자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다. 선 수행은 수행지도자가 자기중심을 잡고 상대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전폭적으로 신임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수행의 출발이고 전부다. 지나친 자신감이나 소극적 자포자기의 마음 모두 수행을 지연하거나 멈추게 한다는 점에서 똑같이 해롭다. 그러므로 살과 활의 처방을 적재적소에서 기민히 사용해 긴장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간화선 수행지도의 핵심이다. 살과 활은 선수행이 중도(中道)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졸락 동시(喙啄同時) 교육론과 교육법의 실제야말로 살활의 공안인 것이다.

정리=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사진=박재현 기자 jwpark@buddhapia.com



간화선 화두의 기능과 역할을 논한 학술대회가 9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꿩수선재



【 내 인생은 내 뜻대로 】

명상학교 수선재의 스승인 문화영 남이 들려주는 ‘쉬운 깨달음’ 이야기. 깨달음은 쉽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제껏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는 ‘깨달음’이란 세속에 찌들어 사는 우리에게 보통 사람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다. 심심산중에서 면벽 수도하는 스님에게나 해당되는 용어라는 게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생각. 하지만 도심 속 명상학교를 표방하는 수선재에서는 깨달음이라는 용어가 ‘밥 먹었다!’라는 말처럼 친근한 용어이다. 회사원, 교사, 주부, 자영업자 등 보통 사람들이 ‘나도 한번 깨달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명상을 하고 있다. 이들이 추구하는 깨달음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 명상으로 건강, 마음의 편안함, 심력(心力, 마음의 힘)을 길러서 작은 일부터 아주 큰일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 그 외 명상학교 교과서 시리즈 】 건강하게 사는 법 • 사랑의 상처를 달래는 법 • 행복하게 일하는 법(근간)



【 목적있게 사는 법 】

인간의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한 명쾌한 해답! 어떻게 태어났으며, 왜 생로병사를 겪을까? 이러한 의문은 살아있는 동안 누구나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 해답은 명상수행에서 찾을 수 있다. 명상수행을 통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 참된 본성고 하나가 되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다.

서울시 중로구 적선동 19 번지 2층 Tel.(02)737-9454 Fax.(02) 737-9456

동양불교조계종 창종취지문

삼보에 귀의하옵고

금번 저희가 고귀하고 걸림없이 살다가신 원효선사의 덕행을 기리고 우리 후학들의 이정표로 삼고저 뜻있는 분들의 고견을 받들어 동양불교조계종이란 이름을 세상에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출세간을 뛰어넘고 진여와 생멸을 회통시키신 원효선사의 남기신 뜻은 후학들에게 인식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시대를 관통하는 화쟁의 정신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전통과 그 유산이 오늘날 정체성이 흐려지고 교계 내의 자중파 우월주의의 경향으로 부처님의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사유가 왜곡되어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에 동양불교조계종에서는 출세간을 아우르는 화회(和會)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하는 취지로 창종(創宗)의 뜻을 내외에 알리는 바입니다. 관심있는 스님들의 동참을 바라옵니다.

☎ 창종예정일 佛記 2552年 10月 중

佛記 2552年 6月 20日

☎ 사무처 : (055)333-7678 (010-5521-7677)

창종준비위원 覺性의 10人 합장